# 3자 관계 내 2대1 역학구도

## (출36:1~38)

8.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 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베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9.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10.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11.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12.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13. 금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만 읽지 않은 앞부분에는 성막제작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만 가져오라는 공포를 모세가 하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나무 널판으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뼈대가 만들어진 성막 위에 네 겹의 앙장을 덮어요. 길이가 14m좀 못되고 너비가 4m좀 넘습니다. 한 17평가량 됩니다. 그 성막을 덮을 네 겹의 휘장과 지성소 휘장, 성소 휘장을 만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으로 <3자 관계 내 2대1 역학구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3자 관계 내 2대1 역학구도'

고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3자 관계는 소위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한 "오이디푸스시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젖을 물리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와의 양자관계 2자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엄마를 좋아합니다. 점점 자라면서 3-6살까지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아빠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자기와의 양자관계에서 인륜적인 엄마라는 생각을 못하고 다른 성으로 느낀다는 것인데 이것이 프로이드의 말입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프로이드에 의하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서 엄마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아빠가 등장을 하면서 엄마에 대한 연적(戀敵)이 되는데 이게 바로 "오이디푸스콤플렉스"라는 것입니다. 양자관계인 2자 관계에서 아주 좋은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 연합과 분열, 조화와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역학구도의 변경이에요. '역학'이라는 것은 힘과 힘의 역동성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부분들은 붙고, 붙은 부분들이 붙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적한다든지 또 함께 공조를 취한다든지 하는 역학구도의 변경이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양자관계가 3자관계로 변하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제작에 관한 얘기만 나오는데 이 성막이 뜻하는바가 바로 3자 관계에서 선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성막자체가 선민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성막 안에 들어갈 법궤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분향단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성막의 얘기만 나옵니다. 내용물이 없는 성막만의 얘기가 뜻하는 것은 바로 3자 관계에서 선민이 취해야 될 마음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그 마음상태의 포인트가 차단입니다. 앞에서도 차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문에 보면 이 널판으로 만든 17평가량 되는 성막을 네 겹의 덮개를 만들어서 덮습니다. 실로 짠 천으로 덮고 숫염소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고 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차단된 마음으로 3자 관계에서 역학구도를 이루고 사는 것이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더 살펴봅니다. 인도의 샴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이름이 강가와 몬달로 45세가 됐습니다. 심장은 둘인데 하체가 하나로 붙어있고 간이라든지 콩팥은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머리가 둘이니 두 인격인데 아마드라고 하는 36살 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분명히 3자인데 2대1 역학구도가 성립합니다. 부인이 둘인데 한 부인을 몰래 따돌리고 남편과 둘이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남편보다 둘이 먼저 결합이 돼 있어요. 이 2대1 역학구도가 선민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3자관계의 역학구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받지 못한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양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부부관계, 부부가 되기 전에 애인관계였잖아요. 이게 양자관계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나와 사업이 양자관계이고 부모자식관계에서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로 양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또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돈, 나와 건강, 건강도 상대화 시켜서 생각하므로 양자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직장문제, 나와 직장문제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은 나와 직장과의 관계로 양자관계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민에게는 이러한 모든 양자관계에 하나님이 언제나 참여하심으로 3자관계의 역학구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3자관계의 역학구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것을 오늘 성막의 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막은 선민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 선민의 마음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참여되는 3자 관계에서 취해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비유하시는가 하면 먼저 나무 널판으로 17평 되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 빈 공간에 네 겹의 덮개를 완전히 덮고 동쪽 면으로만 출입구를 만드는데 여기에도 휘장을 만들어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또 지성소를 구분해서 또 휘장이 있습니다. 지금 빈 공간의 성막을 만들고 덮개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막의 덮개가 네 겹으로 덮이는데 이것이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우선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참여하는 3자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은 차단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만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되라는 것입니다. '네 겹의 차단'이라는 것은 3이 하늘의 완전수이고 4는 땅의 완전수로 네 겹은 '완전한 차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 있으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직장에 있으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보통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 양자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 양자관계의 대상들에 대해서 선민은 네 겹으로 차단을 하는데, 양자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3자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제3자에 대해 대응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도의 샴쌍둥이 자매처럼 죽어도 둘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내 자매보다 먼저 남편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항상 먼저 연합한 상태에서 남편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둘이서 연합된 상태에서 돈 문제를 다루고, 둘이서 연합된 상태에서 건강을 바라보고, 둘이서 연합된 상태에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둘이서 연합된 상태에서 뭐든지 합니다. 밥도 연합된 상태에서 먹습니다. 이게 바로 선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지금 내가 돈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 나와 돈 문제가 양자관계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므로 3자관계가 되는데 내 마음은 성막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자 관계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완전히 네 겹으로 내 마음을 차단하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장은 법궤로 상징되고 진설병과 등대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 상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2가 되고 그리고 돈은 제 3으로서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갖고 계신 뜻으로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대한다면 자식과의 양자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여하심으로 3자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해서 내 마음은 성막이 돼야 하는데 네 겹의 덮개로 차단이 돼야 합니다. 샴쌍둥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을 따라서 관계를 맺고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2대1 역학구도를 위해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나이가 27-28세 가 되었는데 직장이 없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세상 사람들

은 직장이라는 문제와 나와 양자관계가 성립하므로 어떻게 직장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민 청년은 하나님이 참여하시므로 직장으로부터 마음을 차단하는데 네 겹으로 차단하고 하나님과 먼저 연합을 합니다. '차단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직장이 없음으로 생기는 걱정이 없어져야 죽는 것이고, 직장이 없으므로 생기는 슬픔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또 거꾸로 직장이 생긴다고 좋아하는 것도 죽은 게 아니고 차단된 것이 아닙니다. 27-28세가 되었는데 직장이 없다면 어떻게 직장이 없으므로 생기는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 할 수 있고 또 직장이 생겼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도 없느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아닙니다. 차단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이 있든 없든 내일 굶어서 죽게 되더라도 오늘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직장문제를 갖고 계신 뜻이 일어나야 되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성막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삶을 보면 이미 양자관계가 성립이 되었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보면 이미 성립된 양자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돈 문제와 샴쌍둥이가 되어서 아마드 남편인 하나님에게로 나옵니다. 자식과 샴쌍둥이로 연합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2대1 역학구도가 왜곡된 역학구도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에덴에서 마귀가 이룬 업적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역학구도를 바꾸라고 합니다. '왜 네가 먼저 하나님과 묶이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생각한 뜻대로만 네가 살아야 되느냐? 네가 원하는 뜻대로도 살수가 있다. 그게 너무 웃기지 않느냐? 하나님이 독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먹혀 들어가서 3자 역학구도가 선민에게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이 세상과의 양자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샴쌍둥이가 세상의 대상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처럼 나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어 있는 성막으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이 되어서 양자관계로 나를 잡아끄는 그 모든 대상들로부터 네 겹으로 차단이 된 상태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모셔 들임으로서 하나님과의 양자관계가 만들어져서 2대1 역학구도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바로 바깥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너머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과 이미 양자관계로 결합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자꾸 세상 문제에 몰두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성과문제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오로지 성과를 올리려는 생각에만 빠져 삽니다. 그러다 교회 오면 아차 합니다. 하나님과의 3자 관계에서 역학구도가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었고 그래서 사는 동안에 기도도 맨날 '하나님! 성과 올리게 해주세요.'라고 살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서 성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양자관계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어서 물두멍으로 경계를 긋습니다. 시내 산에서

경계를 긋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샴쌍둥이와 같은 결합이 나와 결합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과 결합된 상태에서 내게로 올 때 나는 너희들을 참아낼 수가 없으니 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택은 했지만 양자관계가 이렇게 왜곡된 상태로 나를 찾아왔다가는 내가 너를 진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좋아해서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양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양자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으로 막아버리셨어요, 홍해로 막은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을 두셨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과의 3자 관계에서 자식과 먼저 양자관계로 샴쌍둥이로 결합을 해서 하나님이 제3자가 돼서 2대1로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자식과 결합된 상태에서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업이라는 대상에 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통해서 사업과 결합된 내가 죽어야 하고 자식과 먼저 결합된 내가 죽어야 합니다. 3자 관계에서 하나님을 제3자로 상대하게 되는 2대1 역학구도를 번제단에서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경계를 넘어서 내 마음이 성막의 마음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세상의 양자관계로 나를 끌어 들이려고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네 겹으로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 네 겹으로 차단을 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네 겹으로 차단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기쁨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부부관계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아내로부터 기쁨을 기대하므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도 없이 사느냐? / 누가 기쁨이 없이 살래요? 하나님과 결합해서 생긴 기쁨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던 그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은 돈이 없어도 생기는 기쁨이고 건강이 없어도 생기는 기쁨이고 내가 승진하지 못해도 생기는 기쁨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도 상관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먼저 결합을 해서 그 기쁨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나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 아내가 기쁜데 왜 내가 아내에게 기쁨을 원하고 남편에게 기쁨을 원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차단되는 그런 빈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차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번제로 드려지는 것이지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양자관계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양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앞에 나타나면 양자관계가 성립하잖아요. 돈 문제가 발생하면 양자관계가 성립하잖아요. 자녀 문제가 발생하면 양자관계가 성립하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죽는 것이지요. 상번제가.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먼저 계시는 하나님과 먼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고 하

나님께서 내가 대면하는 양자관계로 돌입할 뻔 했던 그 3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네 겹의 덮개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이 바로 선민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앞에 하나님아버지의 천지창조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무덤에 장사된 것이'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을 빠져나가는 비밀 통로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통로인 줄을 모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민이 아닌 것이지요. 선민은 이 땅에서 마음이 머물면서 양자관계가 성립된 대상에 대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선민이라면 내 마음을 뺏어가는 양자관계에 대해서 죽고 그 양자관계로부터 마음이 도망가는 통로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의 배치 상태가 말해 주는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땅에 묻히시고 장사지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통로예요. 내 마음이 내 자식으로부터 도망가는 통로, 내 마음이 돈으로부터 도망가는 통로, 내 마음이 무직상태로부터 도망가는 통로, 내 마음이 잘되건 못되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자관계로 나를 끌어들이는 것으로부터의 도망가는 통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성막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준비가 되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양자관계로 나를 끌어들이는 대상들을 만날 때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의 만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샴쌍둥이가 되듯이 먼저 결합을 해서 2대1 역학구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대1 역학구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넘치도록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이 2대1 역학구도인 하나님과 결합하고 세상과의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돈을 쓰는 것이지요. 이 일에 돈을 쓰면 진짜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 것이고 삶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대1 역학구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막입니다. '돈을 쓰라'는 얘기는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자관계 내 2대1 역학구도가 반드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샴쌍둥이 관계를 이루어서 2대1 역학구도가 되도록 하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절로 살아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루어진 그 비밀 통로를 따라 모든 세상에 대한 양자관계로부터 탈피하고 탈피된 상태를 네 겹 앙장을 덮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해 2대1 역학구도를 온전한 형태로 유지함으로 이 땅에서 내가 상대하는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의 상대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